

# 사활걸린 싸움, 결연한 의지 보여주자

- 8월30일 추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결속다져 -

지난 8월30일 경동프라자 2층에서 실시된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본회 임원 지회장 및 양록관련 업계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인 결의대회 개최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김은성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97년부터 집요하게 요구하는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에 대해 너무 안일한 자세로 대처했다”고 지적한 후 “금번 개최되는 범 양록인 결의대회에서는 모든 양록인이 하나로 똘똘뭉쳐 코 앞에 닥친 난관을 돌파하자”며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금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양록인의 결속을 다지고 이를 기점으로 보다 양록산업을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대한의 참여인원 확충을 위해 전 양록인에게 행사참여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합의했으며 절편녹용 특집기사가 게재된 9월4일자 축산신문을 구매, 발송하여 양록인의 참여와 이해를 돕기로 결정

했다. 또한 본회 지회별 참가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 독려하기로 하고 회장단 및 임원 포함, 행사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양록농협 역시 대의원을 중심으로 참가를 독려하기로 했다.

행사 당일 각 지역에서 출발하는 대회 참가 버스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 그 내용을 배포하여 인근지역 개별 참가자 동승을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5천만원으로 책정된 행사기금은 비용을 최소화,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협찬금 출연을 호소하고 행사참가 독려문을 통한 양록인의 자발적 모금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행사 당일날에도 수입저지 활동 성금 모금함을 설치, 향후 지속적인 절편녹용 수입저지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의 홍보대책으로는 방송사, 일간신문사 등에 결의대회에 대한 사전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저질 뉴질랜드 녹용 화형식 등을 통해 언론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강력한 집회를 다짐

또한 농축산 전문언론사에도 행사관련 광고를 실시, 양록인의 참여확산과 더불어 모든 농축산인의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추진위원장인 전병설 양록농협 조합장은 “결의대회를 해도, 하지 않아도 절편녹용은 끝내 수입될 것이라며 양록인을 혼선에 빠뜨리는 이도 흑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노력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의지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번 대회가 절편녹용 수입 저지는 물론 국산녹용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고 소, 돼지, 닭 등과 같이 주요축종으로 등재,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축산분야

로 자리매김 시키는 것 또한 금번 대회에서 얻어야 할 것들”이라 말했다.

유현재 공동추진위원장 역시 “자유무역시대에 절편녹용이라고 언제까지나 문을 굳게 닫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수입시기 만이라도 몇 년 뒤로 옮길 수 있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셈”이라고 말하며 “연장된 기간 동안 자급조사료 확보 등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켜 절편녹용 수입 허용에도 흔들림 없는 국내 양록산업의

기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진위원 업계 대표들은 양록인 결의대회 추진성금으로 기백만원에서 몇만원까지의 성금을 약정, 힘을 보탤다. 또한 추진위원 회의 이후에도 양록관련 기자재 및 사료업체 대표 등 양록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은 전화로 성금을 약정하거나 결의대회 참석 여부를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 양록관련 업계 대표는 “양록업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관련업체로서 금번 뉴질랜드의 절편수입 허용 요구는 양록 관련 산업체에도 분명 위협적인 일”이라며 “양록인 뿐 아니라 관련 산업체의 사활이 걸린 싸움인만큼 결연한 의지로 이번 대회에 참석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양록**